

# 보훈장관의 이념 프레임?...정율성 공원 철회 요구 '논란'

### '공산군 응원대장' SNS 글에 지역사회 "도 넘은 흑백 논리" 반발 비밀항일운동에 뛰어난 음악적 업적...수많은 중국관광객 광주 찾아 한중 교류 매개 역할...강기정 시장 "적대 정치 그만...조성사업 계속"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광주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공개 촉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율성(1914-1976) 선생이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을 작곡한 '공산군 응원대장'인 만큼 세금을 들여 기념공원을 조성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박 장관의 주장이다.

하지만 지역 사회에서는 박 장관이 항일운동에 매진했던 정 선생의 업적을 낡은 이념적 프레임으로 재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항일 운동 기록이 있는 인물이라도 북한과 접점이 있으면 기러서는 안 된다는 시대착오적인 '흑백 논리'가 도를 넘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22일 개인 페이스북에 "광주시가 올해 말까지 '정율성 기념 공원'을 짓는다"며 "북한의 애국열사능력이라도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원색적인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정율성은 1939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하고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인 '팔로군 행진곡'(현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을 작곡한 장본인"이라며 "자유대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앞장섰던 사람을 우리 국민 세금으로 기념하려 하는 광주시의 계획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출신인 정 선생은 의열단 소속으로 비밀항일운동을 하는 동시에 음악가로서 재능을 살려 항일 구국 예술활동을 해 온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다.

1933년 중국 남경 의열단에서 설립한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를 졸업하고 항일군정대학 정치부 선전과, 화북조선혁명정년학교 등에서 활동하면서 항일 운동을 전개했다.

남경에서 '5월문예사'에 참여하고 중국 저명 음악가 선성해를 사사한 정 선생은 '조국 향해 나가자', '유격전가', '여성 전투가', '10월 혁명 행진곡', '항전 불려 격동가', '조선 인민 행진곡' 등 항일 가요를 작곡했다.

이 중 중국 인민해방군가인 '팔로군 행진곡', 중국의 아리랑 격인 '연안송' 등이 유명해지면서 정 선생은 중국의 3대 음악가로 추앙받고 있다.

정 선생은 한·중 교류의 상징적 인물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4년 서울대 강연에서 정 선생을 한·중 우의의 상징으로 거론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 베이징대 강연에서 정율성 선생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 선생은 우리 전통음악 보존에도 기여했다. 1951년 서울에서 종묘제례악과 연례악 등 2부 18집의 국악 악보를 찾아내 보존하고 김영삼 정부 시



22일 중국 혁명음악가 정율성을 기리는 역사공원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광주시 동구 불로동의 정율성 생가.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절인 1996년 아내 정설송씨를 통해 대한민국에 기증했다. 현재 이 악보는 한국음악사상 문화재적으로 보존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사회에서는 박 장관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항일운동 업적을 무시하고 정 선생을

공산군의 앞잡이처럼 표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박 장관의 공원 조성 철회 요구를 일축하고 조성사업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조국 독

립을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 항일운동가 겸 음악가로 활동하다 중국인으로 생을 마감한 그의 삶은 시대의 아픔"이라며 "그 아픔을 감싸고 극복해야 광주건, 대한민국이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다"고 밝히며 박 장관의 의견을 반박했다.

이어 "정 선생의 업적 때문에 광주에 수많은 중국관광객이 찾아온다"면서 "적대 정치는 그만하고 다른 것, 다양한 것, 새로운 것을 바기는 우정의 정치를 시작하라"고 강조했다.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은 "정 선생이 1948년 김일성에게 표창을 받은 것은 같은 해 9월 북한 정권이 수립되기 전이었고, 당시 받은 깃발마저 인공기가 아닌 태극기였다"며 "정 선생을 북한 인민군의 앞잡이라고 표현한 박 장관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원봉 의열단 단장을 기리는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등은 괜찮고, 정율성을 기리는 광주는 안된다는 것은 광주를 타깃 삼아 정치적인 공세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광주시와 자치구는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펼치고 있다.

남구는 지난 2009년 양림동에 있는 정율성 생가 인근에 '정율성 거리'를 조성하고 정 선생의 일대기, 사진, 음악, 영화 등을 전시했다.

광주시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동구 불로동에 있는 정율성 생가에서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소규모 분장을 마친 올해부터 조성 공사를 재개해 올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경찰 고위직과 친분 내세워 "수사 도움 주겠다" 광주지검, 금품 챙긴 사건브로커 2명 구속기소

경찰 고위직 간부들과 친분을 내세워 수사에도움을 주겠다고 사기 용의자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체포된 '사건 브로커' 2명이 구속 기소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감각수

사부(부장 최순호)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2)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경찰청 등에 입건된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 C씨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

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A씨 등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 기간 만료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 등에 대한 추가 혐의를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둘은 구속 기소했지만 나머지 구체적인 혐의 사항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A씨의 로비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 등의 수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경찰과 검찰, 지자체 관계자는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교수들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임금 삭감"

### 광주지법 "옛 보수규정 적용 잘못"

교수들 동의 없이 불리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과거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해 급여를 지급한 것은 사실상 임금삭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전남지역의 한 대학 A 교수가 B대학(학교법인)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교수에게 삭감된 임금 7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B대학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교수 임금을 대해 호봉승급은 인정되되 당해 연도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전년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했다. A교수는 이는 취업규칙인 교직원 보수규정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국립대 교원의 임금 인상분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노동자들(교직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A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국립대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되지는 않았지만 금액 측면에서 보수가 삭감되지 않아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1심을 파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교수는 해당 기간 동안 국립대 교원들의 임금 인상분에 상당하는 보수가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았으며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교직원 동의 절차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과거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해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불리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기부금 불법 모집 동물보호단체 운영자 벌금형

### 본인 변호사 선임비용 등 사용

허가 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광주지역 동물보호단체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효진)는 22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대표로 있는 동물보호단체 법인 2곳에도 각각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사·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포털 등 온라인을 통해 기부금품 모집금을 계사해 7억 6100여만원 상당

의 기부금품을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행안부장관이나 시장, 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지만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 관리를 목적으로 모은 기부금 가운데 865만원을 자신의 변호인 선임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오랫동안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에 매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함평 알루미늄 공장 화재 17일만에 완전 진화

함평군 알루미늄 제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17일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지난 5일 함평군 대동면의 한 알루미늄 공장 야적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22일 오전 7시 30분께 완전 진화됐다고 밝혔다.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알루미늄 등 금속분말 600여 t이 불에 타 8160만원 가량 재산피해를 냈다.

소방당국은 알루미늄 분말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알루미늄 등 금속분말에 불이 닿으면 수소소스가 발생해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소방당국은 자연진화 방식을 택했고, 내부 금속분말이 모두 탈 때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완전 진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동행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의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용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외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배틀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